

# 노인의 일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 A Study on Self-esteem and Subjective Evaluations to Work among Elderly Persons

순천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소비자·가족아동학과  
조 교 수 이 신 숙

Dept. of Consumer and Family-Child Studies, Sunchon national Univ.

Assistant prof.: Shin-Sook Lee

### 〈목 차〉

I. 서 론	IV. 결과 및 논의
II. 이론적 배경	V. 요약 및 제언
III. 연구 방법	참고 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look into correlations between subjective evaluations on the work and self-esteem of the elderly so as to provide information for finding out ways of developing their self-esteem.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18 elderly persons in Chonnam and Kwangju city.

The statistic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reliability, stepwis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rough the SAS package program.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 1) The self-esteem of elderly persons was 25.9, which was above the median 24.
- 2) According to the results related to subjective evaluations on the work among the elderly, the positive correlation was by education level, family situation, economic state, social activity level, and health state, while the negative correlation was by sex, age, and spouse.
- 3) According to the results related to subjective evaluations on the work among the elderly, the positive correlation was by worker identity, job satisfaction, quality of work time.
- 4) In Model 1, variables affecting their self-esteem were health state, education

level, economic state, health state, age, social activity level, and sex.

In Model 2, variables affecting their self-esteem were worker identity, education level, economic state, age, health state, social activity level, job satisfaction, and sex. Especially self-esteem of elderly was highly correlated with subjective evaluations on the work among the elderly persons.

## I. 서론

우리나라는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도시집중과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등으로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의존적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수의 6%에 이르고 평균수명은 73.5세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통계청, 1995). 그리고 2002년에는 그 비율이 14%로 예측되고 있어 노인문제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는 것은 노인은 역할을 상실하고 심신기능이 쇠퇴하여 자유로운 환경통제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여 가족이나 친족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년기의 의존성은 병리적인 것이 아니고 생활주기상에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Blenkner(1965)는 지적하고 있지만 결국은 노부모의 의존성은 부양자녀와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노인의 의존성은 역할수행의 감소 내지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업생활에서의 은퇴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증가한다. 은퇴는 개인이 지금까지 수행해 온 지위와 역할의 상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할관계가 부여되며 그 새로운 역할관계의 성격과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은 가족생활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김태현, 1995). 따라서 은퇴는 노인이 사회로부터의 이탈 즉 일에서의 분리를 가져오는 것으로 Friedmann, Havighurst, Miller 등의 활동이론가(Activity Theorist)에 따르면 은퇴로 인하여 노인들은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자아개념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역할지지를 제공하고 이러한 역할지지는 개인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하며

결국에는 생활만족도를 이끌게 되는데 은퇴로 하여금 역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Atchley(1993)도 중년기에 맞게되는 그들의 self-esteem의 원천으로서 작업자의 작업역할과 작업경험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쳐 그들의 복지감에 크게 기여한다고 하였다. Kohn과 Schooler(1983)도 성인의 직업경험은 직업에 임하는 그들의 심리적인 기능에 더 강한 효과를 갖는다고 하여 노년기에 있어서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같이 노인에 있어서 일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지적기능을 고양시키며 타인에 대한 용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기에 이르면 개인과 사회 간에는 상호철회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이탈은 정상적이고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노년기의 일의 중요성은 간과되고 있다. 그리하여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관련된 연구는 많지만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일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보내는 시간에 대한 질적평가, 본인에 대한 작업자로서의 평가 그리고 일에 대한 만족도등 일에 관련된 일련의 주관적 평가가 그들이 갖게되는 자아존중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노인의 일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노인의 배경변인과 일에 대한 주관적 평가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노인의 일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넷째,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배경변인과 일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노인과 일

일(work)은 긍정적으로 보상되는 여러 활동으로 정의된다.

여러 보상 중 일은 개인에게 수입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중요한데 특히 노인에게 가져다 주는 일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에게 소득원을 확보해 주고 둘째, 노인 자신에 대한 유용감과 자신감을 주며 셋째,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지속시켜 준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 신체적 능력의 감퇴에 따른 노동능력의 저하, 과학기술에의 적응능력 부족 및 퇴직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탈락되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 고통 뿐 아니라 사회·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김태현, 1995).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이 1994년 전국의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수입이 되고 있는 일에 종사하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36.7%였으며 남자노인(53.9%)의 경우가 여자노인(25.3%)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64세 노인의 53.1%, 65-69세 노인의 41.0%, 70-74세 노인의 29.3%, 75세 이상 노인이 9.5%로 연령이 높을수록 수입이 되는 일에 종사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 조사에서도 시지역 노인의 24.3%, 군지역 노인의 53.0%가 수입이 되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취업노인의 56.9%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며 단순노동자가 18.9%, 서어비스직 근로자가 13.1%(경제기획원, 1990)라는 맥락과 일치한다. 그리하여 군지역의 경우 50.2%가 근로소득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으며 시지역 노인들은 28.0%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주된 수입원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제활동에 의한 수입이 37.6%이며 그 다음이 장남·며느리로부터의 도움(27.0%)이고 부동산·집세·저축으로부터의 수입(6.9%), 연금·퇴직금(3.9%)의 순이었다. 특히 장남·며느리로부터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 도움의 정도가 많아지고 있었는데 60-64세(15.5%), 65-69세(47.3%), 70-74세(61.5%), 75세 이상(75.5%) 순

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인이 근로를 통하여 수입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액수는 적어 우리나라 60세 이상 전체 노인의 26.8%가 월 10만원 이하의 열악한 경제상태에 있으며 44.5%의 노인이 월수입 20만원 이하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볼 때 60-64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이 9.3%에 불과하나 65-69세(16.0%), 70-74세(36.8%), 75세 이상(59.4%)의 순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월 10만원 미만의 월수입을 가진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김태현·이인수, 1997).

경제활동 참가율에 있어서 1980년에는 남녀노인 각각 45.1%, 16.9%이며 1985년에는 44.3%, 19.2%로 남자노인은 감소하는 반면 여자노인은 계속 늘어나 여자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규모는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 특히 1947년-1973년 사이의 1/4세기 동안 미국의 경우 55세-64세 간의 여성노동력 참가율의 증가는 가장 크며 다음이 45세-54세의 경우이다(Sheppard, 1985).

그리고 나이는 여성 중에서도 홀로된 여성과 이혼 또는 별거하는 여성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독신의 여성들이 배우자와 함께하는 여성보다 노동 참가율이 높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는 육아와 가정 돌보기의 책임감소, 교육의 기회 증가, 핵가족으로 인한 여성 노동력의 '유용성'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삶에 대한 기대수준의 증가로 인한 삶의 질에 대한 높은 기대가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취업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2)에 의하면 취업을 원하는 노인이 전체노인의 50.1%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연령별로는 60대 초반 노인의 72.25%가 일하기를 원하고 있고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노인(51.8%)이 여자노인(47.1%)보다 취업에 대한 희망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같이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의 비율은 높아가고 있으며 더구나 미래의 노인들은 취업에 대해 더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노인들이 취업을 원하는 경우 희망직종을 살펴보면 간단한 가정부업에서 시작하여 담배·소매점 등의 자영업업을 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한국갤럽조사

연구소, 1984;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공원, 가로수 등의 관리 또는 청소를 원하는 비율도 높았다(김성순, 1985). 그런데 노인들이 취업을 원한다 할지라도 실제 일할 능력이 없으면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직무 평가도 낮아 오히려 그들의 만족감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모(1990)의 노인들의 직무 수행능력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전혀 일할 수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7.6%, '간단한 정도의 일만 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노인은 37.2%로 나타나 노인들에게 대체로 직무 수행능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취업에 필요한 기능보유에 있어서도 노인들의 78.6%는 그러한 기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취업을 현실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나이든 근로자는 덜 권태롭고 흥미로운 일을 좋아하는데 이로 인한 수입은 직업만족도와 관련된다고 하였다(Weaver,). Fry (1982), Smith et al.(1969)은 연령증가와 함께 직업만족도는 증가하며 직업에 대해서도 젊은 근로자보다 더 많은 공헌을 한다고 하였다. Saiassi et. al.(1975)도 40살 이상된 근로자들이 그들의 더 젊은 동료들보다 일로 인한 심리적 손상이 더 적고 직업에 대해 더 만족해 한다고 보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볼 때 노인들을 위한 약간의 수입이라도 동반하는 소일거리는 노인의 경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정신건강을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국가나 기업 및 사회가 노인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정책과 의도가 있어야 하겠다(김태현, 1995).

## 2.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일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개인의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된 개념으로(Blascovich & Tomaka, 1991) 자신을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다(Rosenberg et. al., 1995). 자아존중감이 때로는 자아개념(self-concept)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Pope et al., 1988) 자아개념은 자신에 대해 갖는 개인의 인지와 감정의 총체이므로 자아존중감보다는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다. 즉 자아개념이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한 개인이 자기 스스로

에게 부여하는 자기평가와 관련된 모든 특성의 구조물이라면 자아존중감이란 단일한 차원의 개념으로 한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느냐와 관련된 개념이다(Rosenberg, 1979).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가치감이나 긍정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개인적 반응과 그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으로부터 형성된다(김태현·장휘숙, 1988)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자인 Mead(1970)도 인간이 사회집단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은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Sullivan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족관계에서 얻는 대인관계의 경험이 자아존중감 형성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과거에 필요로 했던 만족감을 성취함으로써 오는 자기적절감(self-adequacy)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과거에 필요로 했던 만족감을 획득하지 못했으므로 느꼈던 자기 부적절감 또는 무력감에서 형성된다(김은주, 1995에서 재인용). 결국 노년기의 자아존중감을 높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생활과 긍정적인 생활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년기와 노년기에 나타나는 많은 상실은 노인들의 자아존중감 유지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노인들이 경험하는 배우자와의 사별, 은퇴 등의 생활사건, 경제적 결핍, 대인적 고립, 역할 긴장 등 노년기의 역할변화와 부적응상태, 노인과 노화에 관한 그릇된 신화(myth) 등은 노인의 자존심에 지대한 손상을 가져온다.

일반적으로 연령에 의한 퇴직연령을 노년기의 시작연령으로 보고 있듯이 노인들은 퇴직으로 인하여 개인의 사회적 역할에 커다란 변화를 갖는다. 현대사회에서의 노년층 또는 노인이라는 연령집단은 점차 다른 연령집단과 구분될 뿐 아니라 다른 연령층의 사회와 점차적으로 격리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에게 좌절과 비애를 야기시키는데 일에서 분리됨으로써 무능력, 고립, 빈곤이라는 형태로 노인들

에게 존재하는 인간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김태현, 1995).

즉 노인은 퇴직으로 인하여 일이 줄어들게 되며 노인의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일에서 떠나는 퇴직 전의 사전준비, 퇴직에 대한 태도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퇴직을 하더라도 자신이 만족해하는 일을 여전히 갖고 있거나 직업인으로서의 정체감이 확실하다면 그들이 갖는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달라질 것이다. 물론 일 자체가 사회적 참여라는 측면에서 활동의 지속성을 가져다 주어 활력과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있어서 당면한 문제인 경제적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는데에 그 의의가 더 크다 할 것이다.

Atchley(1982)의 조사에서도 노인들은 직업에서 물러남으로써 자기 가치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Kieffer(1979)도 노인들이 종속적 지위나 피부양적 위치에서 벗어나 정신적·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의 자립적 마음가짐과 노인인력의 활용은 중요하다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퇴직연령이 조기에 그리고 강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로인한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은 크다. 결국 퇴직은 수입의 저하를 가져오고 이는 적절한 영양상태의 유지에 어려움이 초래되어 신체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역할상실로 인한 상실감을 느껴 자아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 생활만족도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활동이론가인 Atchley(1982)에 의하면 일을 비롯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자아개념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역할지지를 제공하고 이러한 역할지지는 개인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하며 결국에는 높은 생활만족도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일련의 개념으로 Bengtson(1985)은 노인이 빈곤하고 허약하며 의존적일 때 그들의 자아존중감은 낮아진다고 하였고 Lee와 Shehan(1989)도 교육과 수입은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강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Larson(1978)도 노인의 복지감과 관련된 30년 간의 연구를 고찰한 결과 수입, 교육 그리고 직업적인 위치는 노인의 복지감과 가장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국내연구인 김옥수(1987)의 연구에서

도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송대현·박한기(1992)의 연구 역시 남자노인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질병이 없는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노인들의 자존심이 높았다고 밝혔다. 이렇듯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위한 노년기의 과제는 자기 협오를 극복하고 자아의 통합성을 갖는 일로 자기에게 적절한 일을 갖고 만족감을 지니는 길일 것이다.

### III. 연구 방법

#### 1. 조사도구의 구성

노인의 일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알아보는 본 조사는 질문지에 의하여 조사되었다. 질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부분, 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측정하기 위한 부분 그리고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부분 등의 3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족상황, 배우자의 유무, 경제상태, 사회활동의 정도, 건강상태 등의 일반적인 상황을 알아보았다.

일에 대한 주관적평가는 Mutran et.al.(1997)이 제작한 일에 보내는 시간의 질적 평가, 작업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능력 평가(작업자 정체감), 일에 대한 만족도(작업만족도)를 알아봄으로써 측정되었다. 일에 보내는 시간의 질적 평가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3점 Likert로 측정되었으며(총점12점, 중앙치8점) 작업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능력 평가는 3문항으로 구성하여 역시 3점 Likert로 측정하였다(총점9점, 중앙치6점). 일에 대한 만족도는 노인의 일에 대한 만족여부를 묻는 단일문항으로 구성하여 매우 만족한다의 4점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1점까지 4점 Likert로 측정하였다(총점4점, 중앙치2.5점)

노인의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Rosenberg(1965)가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선행연구(이신숙·조옥희, 1997)에서도 검증된 바와 같이 우리의 실정과는

거리가 먼 2문항을 제외한 8문항을 본 연구를 위한 척도로 구성하였다. 자이존증감은 5점 Likert로 점수화하였으며(총점40점, 중앙치24점) 본 연구에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1$ 이었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남·광주에 거주하는 남녀 노인이다. 조사는 1997년 11월 3일부터 11월 29일까지 노인학을 수강받는 학생들에 의해 개별면접으로 이루어졌다. 질문지는 모두 360부였으나 회수가 되지 않고 기재가 부실한 42부를 제외한 318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통해 알아보았고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Correlation),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에서와 같이 여자노인은 160명(50.3%)이며 남자노인은 158명(49.7%)으로 남녀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표집되었다. 노인의 연령은 76세 이상이 95명(29.9%), 71세-75세가 93명(29.2%), 65세 이하가 69명(21.7%), 66세-70세가 61명(19.2%)이었다. 교육수준은 무학의 경우가 134명(42.1%), 국졸의 경우가 123명(38.7%), 중졸이상의 경우가 61명(19.2%)이었다. 가족상황은 아들부부와 사는 경우가 117명(36.8%)로 가장 많았고 딸부부와 함께 사는 경우는 11명(3.5%)로 가장 적었다. 배우자의 유·무에 있어서는 생존하고 있는 경우가 180명(56.6%)이었고 사별을 한 경우가 138명(43.4%)이었다. 그들의 경제상태는 '그저 그렇다'는 경우가 150명(47.2%)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노인은 88명(27.7%), '생활하기에 충분하다'는 노인은 80명(25.1%)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집단	빈도(%)	변인	집단	빈도(%)
성별	남	158(49.7)	경제상태	어렵다	88(27.7)
	여	160(50.3)		보통이다	150(47.2)
연령	60 - 65세	69(21.7)		사회활동의 정도	충분하다
	66 - 70세	61(19.2)	한달에 1-2번		115(36.2)
	71 - 75세	93(29.2)	3-10번		106(33.3)
	76세 이상	95(29.9)	10번이상		97(30.5)
교육정도	무학	134(42.1)	건강상태	나쁘다	186(58.7)
	국졸	123(38.7)		보통이다	96(30.3)
	중졸이상	61(19.2)		좋다	36(11.0)
가족상황	혼자 거주	36(11.3)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의 종류	농사일	112(35.2)
	노부부만	94(29.6)		집안일	90(28.3)
	아들부부와	117(36.8)		취업	50(15.7)
	딸부부와	11(3.5)		손자녀 돌보기	30(9.4)
미혼자녀와	60(18.8)	기타		36(11.4)	
배우자유무	생존	180(56.6)			
	사별	138(43.4)			

노인의 사회 활동정도는 '한달에 1-2번' 이라고 응답한 노인의 수가 115명(36.2%)으로 가장 많았고 '한달에 3-10번' 정도의 경우는 106명(33.3%), '한달에 10번 이상'의 경우는 97명(30.5%) 이었다. 건강상태에 있어서는 '건강이 나쁘다'라고 응답한 노인이 186명(58.7%)으로 많았으며 '그저 그렇다'와 '건강이 좋다'라고 응답한 노인의 수는 각각 96명(30.3%), 36명(11.0%) 이었다. 현재 노인들이 주로 하고 있는 일의 종류에 있어서는 농사일이 112명(35.2%), 집안일이 90명(28.3%), 취업 50명(15.7%), 손자녀 돌보기 30명(9.4%), 그리고 기타가 36명(11.4%) 이었다.

#### IV. 결과 및 논의

##### 1. 연구문제 1의 분석 : 노인의 일에 대한 주관적 평가 및 자아존중감의 정도

노인의 일에 대한 주관적 평가 및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표 2>와 같다. 표와 같이 노인의 일에 대한 평가의 총점은 평균 17.2점(최대값24점, 최소값8점)으로 중앙치인 16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모든 영역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 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에 대한 성의 사회화 현상으로 여성들의 역할을 가정내로 국한 시키고 가정밖의 일에 대해 더 낮은 기대를 갖기 때문으로 보인다(D'Arcy et.al., 1984). Andrisani와 Miljus(1977)의 미

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나이든 집단은 젊은 집단에 비해 직업만족도가 높게 나오며 성별의 차이에서도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더 많은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일에 대한 주관적 응답에 있어서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의 차이가 없었다고 밝힌 Loscocco(1990)과 Mottaz(1986)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다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25.9점(최대값40점, 최소값18점)으로 중앙치인 24점보다 높았다. 그리고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노인의 자아존중감이 27.9점으로 여자노인의 23.9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이신숙·조옥희(1997)의 연구결과와 한국노인의 자존심의 실태를 조사한 송대현·박한기(1992), 김은주(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여자노인의 자아존중감이 남자노인보다 낮은 이유는 여자노인은 사회·문화적, 가정적으로 남자노인과 다른 특성으로 살아오면서 자신의 생활이 없이 의무만 강조된 삶을 살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2. 연구문제 2의 분석 : 노인의 배경변인과 일에 대한 주관적 평가 간의 관계

노인의 배경변인과 일에 대한 주관적 평가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인의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는 일에 대한 평가점수와 부적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즉 여자노인인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배

<표 2> 노인의 일에 대한 평가와 자아존중감의 정도

변 인	남성(N=158명)	여성(N=160명)	전 체(N=318명)
	M(SD)	M(SD)	M(SD)
일에 보내는시간의 평가	8.96(2.17)	8.34(1.86)	8.67(2.04)
작업자 역할에 대한 평가	2.19(0.80)	1.99(0.67)	2.09(0.74)
작업 만족도	6.89(1.74)	6.07(1.65)	6.48(1.74)
일에 대한 주관적 평가	18.05(4.24)	16.41(3.64)	17.23(3.94)
자아 존중감	27.9 (5.85)	23.9 (5.90)	25.9 (6.19)

우자와 사별한 경우 작업시간에 대한 질적 평가가 낮고 작업자로서의 정체감도 낮으며 직업만족도도 낮았다. 그리고 교육수준, 가족상황, 경제상태, 사회활동의 정도, 건강상태에 있어서는 일에 대한 평가와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고, 미혼의 자녀와 동거하며, 경제상태가 좋고, 사회활동의 정도가 높으며, 건강이 좋을 때 일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의 건강상태는 일에 대한 평가와 상관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수입과 교육의 정도가 일에 대한 주관적인 응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Ranzijn et. al.(1997), Larson(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빈약한 건강이 직업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제한하며 그들의 주관적인 복지에 가장 강력한 예언자라고 밝힌 Okun(1987)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여러 연구(Ekerdt & Deviney, 1993; Hurd, 1990)에서도 직업에서의 은퇴를 결정짓는 것은 건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일에 대한 평가의 각 부분을 세분하여 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때 이들 간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였다. 즉 일에 보내는 시간에 대한 질적 평가가 높을 때 작업자로서의 정체감도 높았고 직업만족도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 3. 연구문제 3의 분석 : 노인의 일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노인의 일에 대한 주관적평가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는 <표 3>과 같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일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모두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작업자로서의 정체감을 표현하는 작업자로서의 역할평가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일에 대한 만족도, 작업시간에 대한 질적평가의 순으로 그 상관정도를 나타내었다. 즉 작업자로서의 정체감은 작업역할에 있어서 자기의미를 뜻하는 것으로 작업자로서 자기 신뢰와 유능한 측면을 반영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과 가장 관련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Bamundo와 Kopelman(1980)도 일에 있어서 성공적인 경험은 긍정적인 자아상과 내부적인 통제력을 가져온다고 밝혀 작업자로서의 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일에 대한 만족감은 상호관련 깊음을 설명하고 있다.

### 4. 연구문제 4의 분석 :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배경변인과 일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영향력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배경변인과 일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미치는 영향력의 결과는 다음 <표 4>

<표 3> 배경변인/자아존중감과 일에 대한 주관적 평가 간의 관계

변 인	작업시간의 질적평가	작업자로서의 역할평가	직업만족도
성 별	- 0.1441	- 0.2296	- 0.1321
연 령	- 0.2428	- 0.1352	- 0.2177
교육수준	0.2661	0.2490	0.2178
가족상황	0.1129	0.0507	0.0914
배우자 유무	- 0.1482	- 0.1109	- 0.1687
경제상태	0.2291	0.2526	0.2346
사회활동의 정도	0.2771	0.2431	0.1979
건강상태	0.3941	0.3026	0.2949
작업시간의 질적평가		0.4543	0.4034
작업자로서의 역할평가			0.3543
자아존중감	0.1045	0.4723	0.2378



와 같다. 일에 주관적 대한 평가의 영향력을 배제한 model 1에서는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건강상태(1.5897), 교육수준(1.8080), 경제상태(2.1543), 연령(-0.1012), 사회활동의 정도(1.3227), 성별(1.8203)의 순이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5%이었다. 즉 노인의 건강과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활동의 정도가 많을수록, 남자인 경우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높았다. 그 중에서도 건강상태는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11%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병원입원 환자와 양로원 노인을 조사하여 노인의 건강인지가 긍정적인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결과를 밝힌 전시자(1988)의 연구와 그 외의 여러 연구(김은주, 1995; 송대현·박한기, 1992; Ward, 1977)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Model 2에서는 노인의 배경변인의 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추가하여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그들 간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작업자로서의 정체감, 교육수준, 경제상태, 연령, 건강상태, 사회활동의 정도, 일에 대한 만족도, 성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31%였으며 작업자로서의 정체감은 자아존중감에 16%의 설

명력을 나타내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작업자로서의 정체감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상태와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연령이 적을수록, 사회활동의 정도가 높을수록, 일에 대한 만족도가 클수록, 남자일 때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진다. 본 연구 결과는 높은 교육수준과 수입은 일에 대한 장애를 더 적게 경험하고 따라서 일과 자아평가에 더 만족해 하는 경향이 있다는 Shehan(1989), Larson(1978), Okun(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작업자로서 자기 신뢰와 유능한 측면을 반영하는 작업자로서의 역할평가가 긍정적인 경우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은 여러 변인 중 작업자로서의 정체감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 역시 작업자로서의 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일에 대한 만족감은 상호관련 깊음을 설명한 Bamundo와 Kopelman(1980)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노인의 일에 관련된 일련의 주관적 평가가 그

〈표 4〉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배경변인과 일에 대한 평가의 영향력

변인	Model 1			Model 2		
	B	$\beta$	Partial R <sup>2</sup> (step)	B	$\beta$	Partial R <sup>2</sup> (step)
건강상태	1.5897	0.2573	0.11(1)	0.5379	0.0757	0.02(5)
교육수준	1.8080	0.2052	0.07(2)	1.4056	0.1663	0.04(2)
경제상태	2.1543	0.3103	0.04(3)	1.5041	0.2221	0.03(3)
연령	-0.1012	-0.1992	0.01(4)	-0.6047	-0.1175	0.02(4)
사회활동의 정도	1.3227	0.1692	0.01(5)	0.7290	0.0940	0.02(6)
성별	1.8203	0.3836	0.01(6)	1.1978	0.9774	0.01(8)
작업자 정체감 일에 대한만족도				0.2238 0.6097	0.4124 0.0704	0.16(1) 0.01(7)
회귀 상수		12.23			6.37	
R <sup>2</sup>		0.25			0.31	
F		12.45***			21.30***	

들이 갖는 자아존중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전남·광주에 거주하는 노인 318명(남자노인 158명, 여자노인 160명)을 대상으로 면접법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Correlation),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중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일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총점은 평균 17.2점으로 중앙치인 16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모든 영역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 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25.9점으로 중앙치인 24점보다 높았다. 그리고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노인의 자아존중감이 27.9점으로 여자노인의 23.9점보다 더 높았다.

둘째, 교육수준, 가족상황, 경제상태, 사회활동의 정도, 건강상태에 있어서는 일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고, 미혼의 자녀와 동거하며, 경제상태가 좋고, 사회활동의 정도가 높으며, 건강이 좋을 때 일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의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는 일에 대한 평가점수와 부적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즉 여자노인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작업시간에 대한 질적 평가가 낮고 작업자로서의 정체감도 낮으며 일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다. 그리고 일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각 부분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밀접하였다.

셋째,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일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모두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작업자로서의 정체감을 표현하는 작업자로서의 역할 평가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일에 대한 만족도, 작업시간에 대한 질적평가의 순으로 그 상관정도를 나타내었다.

넷째, 일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

본 결과 건강상태(1.5897), 교육수준(1.8080), 경제상태(2.1543), 연령(-0.1012), 사회활동의 정도(1.3227), 성별(1.8203)의 순이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5%이었다. 즉 노인의 건강과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활동의 정도가 많을수록, 남자인 경우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높았다. 그런데 노인의 배경변인에 일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여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그들 간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영향변인으로 작업자로서의 정체감(0.2238), 교육수준(1.4056), 경제상태(1.5041), 연령(-0.6047), 건강상태(0.5379), 사회활동의 정도(0.7290), 일에 대한 만족도(0.6097), 성별(1.19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설명력은 31%였으며 작업자로서의 정체감은 자아존중감에 16%의 설명력을 나타내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작업자로서의 정체감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상태와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연령이 적을수록, 사회활동의 정도가 높을수록, 일에 대한 만족도가 클수록, 남자인 때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진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들의 생활만족의 여부를 나타내는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본 연구 조사결과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에 노인의 일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가정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한다는 본 연구결과를 볼때, 연령이 많다고 해서 취업이나 노동할 기회를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노인인력 활용은 사회보장비의 절감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노인 자신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노인들은 일이 비반복적이어서 권태롭지 않고 흥미로운 일을 선호한다고 선행연구들은 밝히고 있다. 더구나 그들의 일에 대한 만족도는 수입과 관련되기 때문에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만족을 위해서는 시대와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직종의 개발과 함께 보다 많은 노동시장에서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겠다.

셋째, 노인 스스로 신체적 노화에 의해 무기력함과 무용함을 느낄때 일에 대해 소극적이기 쉽다. 계

다가 시대적으로 우리의 전반적인 여건이 열악한 현 상황에서 노인들이 소득을 위해 재취업을 한다는 것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노년기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는 과거에 연연하는 등의 망설임보다는 일에 대한 새로운 동기부여를 통해 능동적으로 탐색하는 개인의 자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 캐나다의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연구와 종합적 대책수립, 일본의 '고령자문제 대책위원회'의 고령자 인력활용방안 연구 등과 같이 우리 정부에서도 노인을 사회적 자산이라는 측면으로 노인들을 격려하고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강력한 국가정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퇴직이란 인생의 종말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원숙한 노년기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퇴직을 앞둔 고령자를 대상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기능적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이 퇴직 전에 실시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재취업에 대한 사전준비가 이루어지고 노후생활에 대한 새로운 목표설정이 이루어져야겠다.

마지막으로 본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노인에게 있어서 일이라는 의미가 사회활동의 참여로 인하여 개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인다는 활동이론에 근거하여 경제적활동이건 비경제적활동이건 활동 자체를 모두 일로 간주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경제활동이나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할때 후속연구에서는 일에 대한 평가를 좀 더 명확하게 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경제기획원(1990). 경제활동 인구연보.  
 김성순(1985). 고령화 사회와 노동. 이우출판사.  
 김영모(1990). 한국노인 복지정책 연구. 한국 복지정책 연구소.  
 김옥수(1987).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불안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52(8), 517-524.  
 김은주(1994). 노부모의 성인자녀와의 결속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김태련·장휘숙(1988). 발달심리학. 서울:박영사.  
 김태현(1995). 노년학. 교문사  
 김태현·이인수(1997). 실버산업의 실태. 하우  
 서병숙(1991). 노인연구. 교문사.  
 송대현·박한기(1992). 한국노인의 자존심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2(1), 79-96.  
 전시자(1988). 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일 병원 입원노인환자와 일 양로원 노인을 중심으로. *적십자 간호전문대 논문집* 10, 125-144.  
 이신숙·조옥희(1997). 성, 연령, 사회적 지원에 따른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161-172.  
 한국궤궤조사연구소(1984).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2).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및 의식구조 조사 결과, 제1차 중간보고.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5).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_\_\_\_\_ (1995). 노인생활 실태 및 정책과 제.  
 Andrisani,P.T., & miljus,R.C.(1977). Individual differences in preferences for intrinsic vs. extrinsic aspects of work.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1, 14-30  
 Atchley,R.C.(1982). Retirement : Leaving the world of work. *Annals* 464, 120-131.  
 Atchley,R.C.(1993). Continuity, theory and the evolution of activity in later life. In J.R.Kelly(eds.) *Activity and Aging : Staying Involved in Later Life*. Newbury Park. CA.: Sage.  
 Bamundo,P.J., & Kopelman,R.E.(1980). Moderating effects of occupation, age, and urbaniz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J. of Vocational Behavior* 17, 106-123.  
 Bengtson,V.L., Reedy,M.N., & Gorden,C.(1985). Aging and self-conceptions : Personality and social contexts. In J.E. Birren, & K.W.Schaie

- (Eds.).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Co.
- Blascovich, J., & Tomaka, J. (1991). Measures of self-esteem. In J. Robinson, P. R. Shaver & L. S. Wrightsman (Ed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Vol. 1), 115-160.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Blenkner, M. (1965). Social work and family relationship in later life with some thoughts on filial maturity. In E. Shanas, Streib (eds.), *Social Structure and Family*, Englewood Cliff, N.J. Prentice Hall, D'Arcy, C., J. Syrotwik., & C. M. Sidique (1984). Perceiving job attributes, job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 A Comparison of working men and women. *Human Relations*. 37, 603-611.
- Ekerdt, D. J., & S. DeVinney (1993). Evidence for a preretirement process among older male workers. *Journal of Gerontology : Social Sciences* 48, s35-s43.
- Fry, L. W. (1982). Effect of age on job satisfaction of policemen. *Personal Communication*.
- Hurd, M. D. (1990). Research on the elderly : Economic status, retirement, and consumption and saving.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8, 565-637.
- Kieffer, J. A. (1979). Older americans : An untapped resources. The National Committee on Careers for older Americans.
- Kohn, M. L., & C. Schooler (1983). work and personality : An inquiry into the impact of social stratification. Norwood, NJ: Ablex Pub.
- Larson, R. (1978). Thirty years of research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persons. *Journal of Gerontology* 33, 109-125.
- Lee, G. R., & C. L. Shehan (1989). Social relations and the self-esteem of older persons. *research on Aging* 11, 427-442.
- Loscocco, K. A. (1990). Reactions to blue-collar work : A Comparison of women and men. *Work and Occupations* 17, 152-177.
- Mottaz, C. (1986). Gender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work-related rewards and values, and the determinants of job satisfaction. *Human Relations* 39, 359-378.
- Mutran, E. J., Reitzes, D. J., Bratton, K. A., & Fernandez, M. E. (1997). Self-esteem and subjective responses to work among mature workers :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y gender. *Journal of Gerontology* 52(2), s89-s96.
- Okun, M. A. (1987). Life satisfaction. In G. L. Maddox (Ed.), *The Encyclopedia of Aging*, New York : Springer.
- Pope, A. W., McChale, S. M., & Craighead, W. E. (1988). Self-esteem enhancement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New York, Pergamon Press.
- Rosenberg, M., Schooler, C., Schoenbach, C., & Rosenberg, F. (1995). Global self-esteem and specific self-esteem : Different concepts, different outcom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141-156. (197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 An introduction to gerontology* (2nd ed.). Holt, Rinehart and Winston.
- Sheppard, H. L. (1985). Work and retirement. *Aging and Social System*.
- Smith, P. C., Kendall, L. M., & Hulin, C. L. (1969). The measurement of satisfaction in work and retirement. Chicago : Rand McNally.
- Ward, R. A. (1978). limitations of the family as a supportive institution in the lives of the aged. *Family Coordinator* 27. 365-373.
- Weaver, C. N. (1978). Sex differences in the determinants of job satisfac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1, 265-274.